국힘 文정부 정조준…태양광 특위에 한전공대까지 공격

정진석 "도보다리 미몽서 깨어나길"
성일종 한전 공대 설립 작심 비판
대북 정책·신재생에너지 등 총공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작심 비판하는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의혹에 대해 '아수라 카르텔'이라고 각을 세우는 등 야권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제발 좀 (판문점) 도보다리의 미몽에서 깨어나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김정은 남매 눈치만 본 굴욕적 대북정책과 탈원전을 강행했다"며 "가장 큰 잘못은 국가 안보 기본틀을 와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가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께 여쭙고 싶다. 북한의 핵 보유가 북한 정권 국체이고 남한 선제타격을 법에 명시한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정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도보다리에서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뭔지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속아넘어간 평화 프로세스 실체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판문점 도보다리는 2018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하면서 함께 걸었던 곳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남북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혔다. 당시 도보다리 만남을 기획했던 윤재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대위원장 취임 며칠만에 북풍으로 정국을 타개하려 하느냐"며 "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국민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내에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 과제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만든 것은 전 정권의 주요 사업을 들여다보고 비위 의혹에 대해 정조준하겠다는 뜻이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대안으로 휩쓸던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점이 드러났다"며 "2600억원, 사라진 265만 그루 나무,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버려진 태양광 패널,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총 7277억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비용보전 신청, 모두 국민이 갚아야할 돈"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공개 거론한 바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전 공대 설립도 비판했다. 성 의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전국에 수많은 전기 관련 학과가 있음에도 1조6000억원이 들어갈 한전공대 (건립),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전국의 태양광 사업들, 김정은의 폭파로 세금 710억원이 증발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8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언급한 뒤 "민주당이 예산 낭비를 운운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유력 정치인, 기업, 사법부가 얽힌 아수라 카르텔이다. 심기일전해 성역 없는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맹공했다.

또 야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의 조폭적 행태를 더욱 조장해, '노피아(노조+마피아)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거듭 반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지지율 34.4%
리얼미터 조사…1.8%P 올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선, 부정평가는 63%선을 각각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6일(9월 2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5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4.4%(매우 잘함 19.3%, 잘하는 편 15.1%)로 집계됐다.

국정 지지율은 지난달 2주차 조사에서 8주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30.4%로 반등한 뒤 33.6%까지 3주 연속으로 상승했다가, 지난달 마지막주에 32.3%로 하락한 바 있다. 이달 들어 소폭 올라 32.6%를 기록한 후 이번 조사에서도 34.4%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낮아진 63.2%(잘 못하는 편 9.7%, 매우 잘 못함 53.4%)로 조사됐다. 긍·부정 차이는 28.8%포인트로, 1주 사이 3.2%포인트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8.8%P↑), 60대(6.8%P↑), 가정주부(6.7%P↑), 대구·경북(6.2%P↑) 등에서 상승 폭이 높았다.

부정 평가는 무직/은퇴/기타(5.7%P↑), 20대(3.3%P↑), 대전·세종·충청(2.0%P↑), 국민의힘 지지층(1.6%P↑)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연합뉴스

"이준석 제명 해야죠"…또 문자 들통난 국힘
정진석·윤리위원 대화 내용 포착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놓고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상의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19일 언론에 포착됐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사진기자 등에 의해 촬영·보도된 정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은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유 의원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장을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윤리위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군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겁니다. 한 100번 잘못하면 한 번 정도 찍힐 텐데"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정치인 비호감 이준석·안철수·이낙연 순
한국갤럽 조사

여야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비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호감도에서는 여당 광역단체장인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비호감도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60%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6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57%), 이재명 민주당 대표 (56%),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53%), 한동훈 법무부 장관 (51%), 홍준표 대구시장 (48%), 오세훈 서울시장 (46%)순이었다.

반면, 호감도가 높은 인물로는 오세훈 41%로 1위, 홍준표 대구시장이 40%로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2%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 대통령 찰스 3세 만나 애도의 뜻 전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런던 북쪽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리셉션장으로 향했고,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리셉션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를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항상 헌신하신 여왕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의 영국 국왕 즉위에 대해서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찰스 3세는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이 기존 순방 일정을 조정하면서 영국을 방문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찰스 3세는 영국 왕실 가족도 일일이 소개하면서 커밀라 왕비와 윌리엄 왕세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윤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

특히 왕세자비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기에 초대해준다면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찰스 3세 국왕도 오래전인 1992년 한국을 방문했기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고 김은혜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를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을 만나 환담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